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01면	축하받는 신춘문에 당선자들	1
江原日報	22면	"강원문화, 2024동계청소년올림픽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	2
강원도민일보	12면	디자인 씽킹뮤지엄 창립총회	3
강원도민일보	23면	자연보호중앙연맹 정기총회서 김용덕 총재 선임	3
江原日報	21면	자연보호중앙연맹 정기총회	3
강원도민일보	06면	강원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 사무실 속초 이전 현판식	4
원주투데이	온라인	단구동번영회 신년 인사회 성료	4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지광천(평창) 도의회 안전건설위 부위원장	5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	5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5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김기철(정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5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김일용(원주) 고성군의장·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	5
강원도민일보	01면	도교육청 대회 인력파견·학생참여 차질 난감	6
강원도민일보	02면	IOC '2024강원' 가치 알리기·불법 확산 총력	6
江原日報	02면	"함께 꿈꾸고 모두 이루자" 강원2024 선수촌 공식 개촌	7
江原日報	02면	동계 꿈나무들 선수촌 입촌	7
江原日報	04면	원주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백지화 촉구	8
江原日報	10면	'사고 위험' 춘천~홍천 국도 4차선 확장 절실	8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관광대도 '취청' 영동권 대학 생존 위기감 고조	9
강원도민일보	16면	화천산천어축제 온라인서도 뜨거운 인기	9
강원도민일보	17면	러시아산 냉동명태 속초항 직수입 추진	10
江原日報	04면	강원도에 겨울이 사라진다	1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총선 공천 시대성 부합해야	1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여주~원주전철 이어 춘천GTX 확정을	12
江原日報	19면	[사설]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 지역발전 전기 삼아야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여야 공천, 국민 눈높이 맞추지 않으면 '백전백패'	14

江原日報

2024년 01월 16일 (화)

종합 01면



축하받는 신춘문예 당선자들 ‘2024 강원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 및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1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신춘문예 당선자들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이재한 도예총 회장, 최찬호 강원민예총 이사장을 비롯한 도내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2024년 01월 16일 (화)

문화 22면

江原日報

“강원문화, 2024동계청소년올림픽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길”

15일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 및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열린 춘천 베어스호텔에는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강원 문화의 힘찬 도약을 희망하는 거대 '사인벨트'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참석한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문화예술인들은 벨트에 덕담과 함께 한 해 소망을 적으며 청룡의 해를 맞은 만큼 강원 문화가 높이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사인벨트에 “강원 文化(문화)를 세계에 알리자”라는 문구와 함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전 세계에 선보일 ‘올림픽 패스티벌’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했다.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은 “강원문화예술인 새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라고 썼고, 장승진 춘천문화재단 이사장은 “푸른 용의 기상으로 강원 문화 날아 보자”, 황상철 강릉민예총 회장은 “강원문화예술인 파이팅 합시다”, 유병용 춘천예우회장은 “성공을 기원 합니다”라고 쓰며 강원 문화의 힘찬 시작을 축하했다.

원대재 김유정문학촌장은 “김유정문학촌에서 응원합니다”, 지소현 강원수필문학회장은 “청룡의 지혜와 용기처럼 비상하시라”라고 남겼다. 송병숙 춘천여성문학회장은 “문화예술계 파이팅”, 이연희 강원문인협회 사무처장은 “올해 만사 형통하시라”



◇'2024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 및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1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김진태 도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이재한 강원예총 회장, 최찬호 강원민예총 이사장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신춘문에 당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참석자들이 간식을 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지역 문화예술인 대거 참석 사인벨트 다양한 염원 담아 선배 문인들 당선자들 격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사인벨트에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박승선기자

소서”라고 적으며 문화예술인들에게 새해 덕담을 전했다.

강원 문화 예술인을 응원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문구도 많았다. 이혜규 춘천연극제 이사장은 “춘천연극제에서 응원합니다”라고 적으며 연극인을 격려했고, 박꽃길 작가는 “새해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금진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은 “힘찬 문화 발전”, 조성민 작가는 “신년문화를 축하한다”고 썼다.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은 “강원 문화 세계로”를 쓰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에 뻗어 나갈 강원 문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신춘문에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 만큼 지역 문화가 부흥하기를 기

원하는 메시지와 신춘문예의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강원일보에 대한 성원도 이어졌다. 구자근·김승선 작가는 “청룡의 기운이 강원일보와 독자들에게 내리기를”이라고 썼고, 신경호 도교육감은 “전통과 권위있는 강원일보사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신 작가님들 축하드립니다”고 적었다. 동화부문 당선자 이경선 작가는 “앞으로 재미있고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어른이 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강원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춘문에 동화·동시 부문 심사를 맡은 원유순 작가는 “희망의 청룡 열차 타고 힘차게 비상하세요”를 적으며 2024 신춘문에 당선자들을 격려했다. 김민희·김요미기자

/ 참석자 명단(무순)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허영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김기홍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이재한 강원예총회장 △최찬호 강원민예총 이사장 △전종철 G1방송 대표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진태 춘천시의장 △이재철 국립춘천박물관장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주선 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장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해규 춘천연극제 이사장 △김금분 김유정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건실 강원특별자치도노인회 회장 △안정희 강원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장 △홍기종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한경숙 강원여성 100인회 회장 △정병자 현빈커피

일여성 강원협의회장 △이금진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이연희 강원문인협회장 △심오섭 도의원 △신성열 춘천시의원 △최연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이상수 강원음악협회장 △박중서 춘천예총 회장 △김봉열 원주예총 회장 △원대재 김유정문학촌장 △김희정 춘천문화재단 본부장 △최지순 강원예총 교문 △기연옥 춘천시예총회장 △안희정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부장 △민연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박사 △심상만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 △유진규 마이미스트 △김홍주 (사) 강원민예총 춘천지부장 △김인 (사) 강원민예총 원주지부장 △황상철 (사) 강원민예총 강릉지부장 △강경호 (사) 강원민예총 총영원지부장 △김홍국 (사) 강원민예총 삼척지부장 △고도연 (사) 강원민예총 동해지부장 △이학근 (사) 강원민예총 평창지부장 △서준호 (사) 강원민예총 삼척지

장 △유원재 (사) 강원민예총 사무국장 △안광수 강원사진포럼 회장 △김상나 춘천무용협회장 △정강주 춘천사진작가협회장 △김정훈 춘천연극협회장 △심재광 춘천예총 부회장 △고미경 춘천국악협회장 △최성순 콘서트가이드 △이미미 춘천마임축제 사무국장 △최대원 춘천마임축제 홍보마케팅팀장 △김남권 한국시문학문화회 △이복수 박사(전 강원수필문학회장) △송경애 강원여성문학회장 △정광옥 강원여성사예협회 이사장 △지소현 강원수필문학회장 △박경자 강원여류사예가협회장 △이현선 강원사학회 △이형재 강원건축가회 명예회장 △신재군 강원건축가회장 △송병숙 춘천여성문학회장 △이병옥 춘천수필문학회장 △장승진 춘천문인협회장 △유병용 춘천예우회장 △김요한 춘천미술협회 지부장 △남진원 강원문인협회장 △조현선 춘천인

형극제 이사장 △박명옥 강원민족미술협회장 △오영주 사진과 좋은친구들 회장 △권은서 춘천문화원장 △이연희 강원문인협회 사무처장 △이미지 강원예총 사무처장 △최인홍 강원재능사남소협회장 △송은영 강원예총 사무처장 △박영권 춘천예총 사무국장 △강영복 사진작가협회 도지회 부회장 △김희숙 사진작가협회 도지회 재무간사 △전상영 강원음악협회 이사 △김옥주 (사) 강원민예총 원주지부 부지부장 △정용범 (사) 강원민예총 원주지부 음악협회장 △이현영 (사) 강원민예총 원주지부 무용협회장 △김창열 (사) 강원민예총 동해지부 음악협회장 △이수환 (사) 강원민예총 춘천지부 사무국장 △김도형 (사) 강원민예총 원주지부 사무국장 △김주창 (사) 강원민예총 동해지부 사무국장 △정호영 (사) 강원민예총 영월지부 사무국장 △김광남 작가 △신

욱현 작가 △안용선 작가 △구자근 작가 △전대원 작가 △이형재 작가 △정지인 작가 △김백신 아동문학가 △박순배 작가 △김승선 작가 △복선혜 작가 △김병숙 작가 △남대원 피노니아 대표 △김영주 안무가 △변유정 연출가 △고정영 작가 △김길중 작가 △김병호 작가 △김분호 작가 △박꽃길 작가 △사파린 사진가 △송광호 수필가 △김선옥 작가 △이영춘 사진가 △신우미에 사진 △정준일 조각가 △최중갑 작가 △이수현 작가 △오승구 작가 △백은주 도자회화작가 △이상윤 사진가 △이무상 도문인협회 교문 △김길영 도문인협회 이사 △김기갑 도문인협회 이사 △함태선 도문인협회 이사 △이승철 도문인협회 이사 △최연희 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김시훈 도사회복지협의회 실장 △박남진 강원문화재단 정책협력실장 △이예화 강원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최승주 강원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 △박해영 평창대관령음악제 운영실장 △신지희 강원트라이엔날레 운영실장 △황현중 강원도립극단 운영실장 △고성은 강원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임희강(강원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부문 당선자) △황영기(강원일보 신춘문에 시 부문 당선자) △이경선(강원일보 신춘문에 동화 부문 당선자) △정은진(강원일보 신춘문에 동시 부문 당선자) △송민애(강원일보 신춘문에 화곡 부문 당선자) △이홍섭 시인(강원일보 신춘문에 시사위원) △김도형 소설가(강원일보 신춘문에 시사위원) △이화주 아동문학가(강원일보 신춘문에 시사위원) △권영상 아동문학가(강원일보 신춘문에 시사위원) △원유순 아동문학가(강원일보 신춘문에 시사위원) △이정진 아동문학가(강원일보 신춘문에 시사위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6일 (화)

지역 12면



디자인 씽킹뮤지엄 창립총회 디자인 씽킹뮤지엄 창립총회가 15일 강릉시 구정면 현지에서 이보람 디자인씽킹뮤지엄 관장, 최승순·김기하 도의원, 김남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황학수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 위원장, 김동찬 강릉단오제위원장, 박원재 울곡교육원 원장, 최상복 전 강릉교육장, 김수정 강릉연예인협회 고문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6일 (화)

인물 23면



자연보호중앙연맹이 15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자연보호중앙연맹 정기총회서 김용덕 총재 선임

자연보호중앙연맹이 15일 원주 빌라드아모르에서 제1차 이사회 및 제4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 및 총회에는 원제용(강원도의원) 부총재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협의회장과 대의원이 참석해 제20대 김용덕 총재를 새롭게 선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김용덕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60만 회원간 결속을 다지고 자연보호 현장을 준수해 동료시민들이 함께 실천가능한 생활밀착형 자연보호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영 mod1600@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1월 16일 (화)

인물 21면



자연보호중앙연맹 정기총회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은 15일 원주 빌라드아모르 컨벤션홀에서 김용덕 신임 총재와 원제용(강원특별자치도의원) 부총재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6일 (화)

경제 06면



강원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회장 한두삼)는 15일 속초종합중앙시장에서 상인연합회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 사무실 속초 이전 현판식

강원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회장 한두삼)는 15일 속초종합중앙시장에서 상인연합회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는 2024년 1월 이사회에 이어 속초로의 연합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병선 속초시장과 강정호 도의원, 최명순 강원중소벤처기업청 영동사무소장, 백순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본부장, 한두삼 도 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상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황선우

원주투데이

2024년 01월 15일 (월)

강원

단구동번영회 신년 인사회 성료

김윤희 기자



단구동 번영회(회장 김희영)는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단구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병민 단구동장, 송기현 국회의원, 류인출 도의원, 박한근 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신년 덕담을 주고 받으며, 화합과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김윤희 기자 wonjutoday@hanmail.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6일 (화)

인물동정 15면



지광천(평창) 도의회 안전건설위 부위원장은 16

일 오전 10시 30분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생활개선평창군연합회 연시총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6일 (화)

인물동정 14면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은 16

일 오전 11시 인제군 시각장애인연합회지에서 열리는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6일 (화)

인물동정 17면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6일 오전 11시 속초시청

호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청호동주민자치위원회 1월 2차 월례회의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6일 (화)

인물동정 15면



김기철(정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16일 오

전 10시 50분 정선군 신동읍 조동복지회관 1층에서 열리는 2024년 신동읍 소통·공감 간담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6일 (화)

인물동정 17면



김일용(왼쪽) 고성군 의장·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16일 오전 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이통장연합회 고성군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6일 (화)

종합 01면

도교육청 대회 인력파견·학생참여 차질 난감

GANGWON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D-3

교육가족 1만여명 방문 예상
실제 수요조사 4000명 수준
겨울방학기간 학생 동원 난항
파견 희망자 신청 10여명 그쳐
현지 체류 여비 도교육청 부담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4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원에 나섰지만 학생 참여가 부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에 필요한 비용 역시 도교육청이 전부 떠안게 되면서 이를 두고 동계올림픽조직위와 갈등관계가 계속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본지 취재결과 당초 도교육청은 대회기간 교육가족 1만여 명이 경기장을 찾을 것이라 보고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실제 수요조사 결과 참여의사를 밝힌 인원은 4000명 수준에 그쳤다. 이들에 대한 식비와 교통비는 도교육청이 전부 부담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할 수는 없어 자율적으로 모집한 결과 4000명이 조금 안 된다"면서 "청소년이 주인공인 대회라 보니 도교육청은 최대한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림픽 개최 8개월 전부터 도교육청 각 부서와 17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강원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올림픽 참여에 대한 홍보 활동을 자발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조직위의 성화 투어에는 도내 학교 18곳이 동참했다. 현장 파견 인력도 당초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당초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했으나 신청자가 10여 명에 그치면서 분청 소속 각 부서와 17개 교육지원청, 15개 직속기관 등에서 50명을 총원했다. 이들이 현지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여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도교육청과 조직위는 지난해 말부터 인력 파견과 학생 참여 독려를 두고 대립해왔다. 조직위 차원의 지원이 전무, 사실상 도교육청이 참석 독려를 전담

하면서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침 일찍 나가 밤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지도를 나가야 하는 등 처우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돌아 지원자가 적었다"며 "조직위에서 전혀 지원이 없다 보니 인력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직위 측은 "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식비와 교통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 참여 독려는 물론, 행사 전반적인 '노쇼마기'가 마지막과 제로 퍼포먼스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 대동행 기자실에 강원 2024 준비상황

을 설명하면서 "이미 모든 준비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이제는 노쇼 방지, 어떻게 하면 (경기 예매한)이분들이 직접 보러 오느냐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노쇼 방지 대책으로 김 지사와 도청 관계자는 현장 발매 집중, 인기 종목 초과 예매 허용, 단체 관광객 유치 등을 제시했다. 정민엽·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6일 (화)

스포츠 02면

IOC '2024강원' 가치 알리기·불입 확산 총력

<국제올림픽위원회>

개회식 등 최신 소식 홍보 집중
경기 생중계·스트리밍도 제공
내일 바흐 위원장 선수촌 방문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대회 불입과 가치 확산에 나섰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오는 17일 강릉 선수촌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들어간다. 앞서 크리스토프 두비 IOC 수석국장도 먼저 현장을 방문, IOC 차원의 실무 점검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IOC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이어받아 가치를 확산하는 대회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바흐 위원장은 최근 드림프로그램 개막식에도 영상 축전을 보내 "평창올림픽이 남긴 유산이 여전히 전 세계 젊은 세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인사했다. IOC에서 근무하는 영리더(Young Leader)들도 이번 대



크리스토프 두비 IOC 수석국장, 김철민 조직위 사무총장 등 IOC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최근 현지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강원도 조직위

회에 참여, 선수들과 함께한다. 대회기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출전선수들의 멘토가 될 롤모델 선수(Athlete Role Models·ARM)들의 역할에도 기대를 보내고 있다.

IOC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종목별 소개와 관람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소개에 나선데 이어 독점 생중계 계획

도 알렸다. 올림픽 채널과 공식 올림픽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생중계와 디지털 스트리밍을 진행, 모든 경기와 하이라이트 장면을 시청할 수 있다. 대회 사상 첫 메타버스 체험관 조성을 알린 데 이어 양정웅 총감독이 발표한 개회식 내용도 최신 뉴스로 올렸다.

IOC는 이번 개회식의 '우주' 테마에

대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얼음 행성' 놀이터부터 중력을 거스르는 우주 공간의 자유로움까지,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며 "참가 청소년들은 '함께 성장하고, 영원히 빛나다'라는 슬로건에 따라 자신만의 빛나는 별과 소우주를 탐험하며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개회식 피날레를 장식할 디지털 성화를 사진과 함께 소개, "경기장 밖에서도 성화대에 불을 밝힌다. 강릉올림픽 파크에서 볼 수 있는 디지털성화대에서 방문객들은 사진과 셀카를 찍을 수 있다"고 했다.

소녀시대 출신 태연과 필리핀 출신 케이팝 그룹 HoriTon의 평창동계올림픽사출연소식을 처음 알리는 행사의 중심이 되는 K-문화공연 라인업도 모두 소개했다.

대회의 30가지 핵심 정보도 별도로 모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날짜와 경기장소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종목, 마스코트 문초의 탄생 배경, 주목해야 할 선수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이 무엇인지까지 정리했다.

지난 11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공식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이드라인도 발표, 출전선수들이 개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팬이나 동료들과 올림픽 여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넓혔다. IOC는 "젊은 선수들이 강원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진 ▶관련기사 21면

江原日報

2024년 01월 16일 (화)

스포츠 02면

“함께 꿈꾸고 모두 이루자” 강원2024 선수촌 공식 개촌

강릉선수촌 입촌 시작 79개국 선수단 2,950여명 머물 예정
정선선수촌은 18일 개촌... 조직위 식당·메디컬센터 등 제공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머물 선수촌이 15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다.

강릉원주대에 마련된 강원2024 강릉 선수촌이 이날 공식 개촌하자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회를 앞두고 개최지에 도착한 선수들은 자원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등록을 하고 보안 검색 등의 절차를 끝낸 뒤 국가 별로 지정된 숙소로 향했다.

입촌을 마친 각국 청소년들은 대회 마스코트인 ‘몽조’와 사진을 찍거나 선수촌 주변을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알파인스키 종목에 출전하는 이바노바(18·키르기스스탄)양은 “2018년 연습차 평창을 온 적이 있다”며 “강릉은 처음인데 도시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했다. 함께

출전하는 사키로프(18·키르기스스탄)군 역시 “한국 방문은 처음인데 굉장히 설렌다”며 “좋은 추억을 쌓고 가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강릉과 정선에 마련된 선수촌에는 79개국 선수단 2,950여명이 순차적으로 머물 예정이다. 정선 선수촌은 오는 18일 개촌한다.

조직위는 선수촌에 동시 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을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한다. 메디컬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포토존, 포토박스, 올림픽 마스코트 이벤트 등을 마련해 대한민국 선수촌만의 특별한 경험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

조직위와 IOC는 선수촌이 공식 개촌한 이일부터 선수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선수촌 일대 보안 검사 및 출입 제한을 강화했다.

강원2024취재단=류호준·권태명기자

2024년 01월 16일 (화)

스포츠 02면

江原日報



동계 꿈나무들 선수촌 입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들이 15일 강릉원주대에 있는 선수촌에 입촌하고 있다.

강원2024취재단=권태명기자

江原日報

2024년 01월 16일 (화)

사회 04면

원주 공립단설유치원 신설 백지화 촉구

20개 단체 설립 철회 기자회견
최근 유치원 규모 축소 반대도
교육청 “심사 이후 입장 정리”

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주교육지원청 현 부지 내 공립단설유치원 신설을 추진(본보 2023년 10월31일자 11면 등 보도)하는 가운데 강원 교육단체들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강원도·원주시연합회 등 교육단체 20여 곳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유아

교육은 공립유치원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그릇된 전체주의 사고에 기인한 설립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소수의 선택된 아이들이 아닌 모든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대하는 7,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 반대 근거로는 설립 예정지 인근 유치원들의 평균 충원율이 53%에 불과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앞서 중투위는 원주교육지원

청 이전·신축 사업에 대해 지난해 10월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다. 현 청사 부지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이전·신축 조건이다.

도교육청은 수요조사를 거쳐 지난 달 14학급, 242명 규모의 원주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안을 중투위에 제시했고, 설립 규모 재조정을 포함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일부 교육단체들이 공립 설립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주 열리는 교육부 중투위에서 유치원 설립 규모가 결정된 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휘기자

江原日報

2024년 01월 16일 (화)

지역 10면

‘사고 위험’ 춘천~홍천 국도 4차선 확장 절실

【홍천】춘천과 홍천을 잇는 국도 5호선의 4차선 확·포장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춘천시 동내면과 홍천 북방면 구간의 국도 5호선은 인근에 산업단지와 공장 등이 들어서 있어 통행량이 많지만 왕복 2차선에 급커브 및 고개가 많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구간은 겨

통행 많지만 왕복 2차선 급커브 잦아... 운전자 안전 위협
21.5km 개선 3천억원 필요... 정부 5개년계획 반영 촉구

울철이면 블랙아이스로 인한 차량 미끄럼 사고위험도 높다. 이때문에 국도 5호선 4차선 확포장은 그동안 춘천·홍천 주민들의 현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지역에서는 특히 올해 발표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4차선 확포장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당초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반

영됐었고, 2013년에는 13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정부계획 포함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다. 또 춘천과 홍천 간 이동 편의성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외지 방문객 유입 등을 위해 확포장이 필요한 노선이다.

춘천 동내면 학곡리~홍천

북방면 상화계리 21.5km 구간 2차선을 4차선으로 연장하는 국도 5호선 개선사업의 예산은 총 3,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강원관광대도 '휘청' 영동권 대학 생존 위기감 고조

2024년 01월 16일 (화)

종합 04면

폐지 관련 공청회, 도내대 술렁
4년제 2곳 정시경쟁률 3대1 미만
학령인구 급감 존립위기 현실화
타지역 캠퍼스 비중 확대 움직임

속보=강원관광대가 폐교로 가닥을 잡고 지역사회 의견수렴에 착수(본지 2024년 1월 15일자 12면 등)하자 강원도내대학들이 동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동해 한중대에 이어 태백에

자리잡고 있는 강원관광대마저 휘청이자 영동권 대학의 생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결과 학교법인 본진학원과 강원관광대는 16일 교내에서 '강원관광대 폐지에 대한 태백시·태백시의회·태백시민단체 공청회'를 개최한다. 강원관광대는 지난해 9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지한다는 사실을 공지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폐교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2월 동해 소재의 한중대가 폐교한 데 이어 6년 만에 도내 대

학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소식에 강원도내 대학들은 술렁이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들의 존립 위기는 이미 현실이다.

앞서 마감된 2024학년도 정시 원서접수 결과에서는 강원도내 4년제 대학 9곳 가운데 2곳이 경쟁률 3대1 미만을 기록했다. 정시 원서는 가·나·다군 3곳을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 3대1 미만을 미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올해 강원도내 4년제 대학의 평균 정시 경쟁률은 3.78대 1로, 이는 서울(5.79대 1), 경기(5.89대 1), 인천(6.32대 1)

과 비교해 3p 가까이 낮다.

특히 강원도내 폐교 대학이 영동권에 집중되면서 남아있는 영동권 대학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동지역 소재 일부 대학은 타 캠퍼스의 비중을 늘리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원주문막과 고성, 경기도 양주 3곳에 캠퍼스를 둔 경동대는 양주캠퍼스를 키우고 있다. 본지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9년(공시연도) 재학생 1833명이 있던 경동대 고성캠퍼스는 매년 학생수가 하락, 지난 2023년에는 731명으로 1000명이

상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재학생이 2133명이던 양주캠퍼스는 지난해 2546명을 기록하며 413명 늘었다. 또한 일부 학과(93명)의 경우 지난해까지 원주 캠퍼스로 모집하던 인원을 올해부터는 양주 캠퍼스로 모집한다.

영동권 소재한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학생이 오기에 춘천이나 원주 같은 영서지역 보단 영동권이 더 낫다는 심리적 요인이 있는 것 같다"면서 "입학자원은 주는 데 등록금은 동결되다 보니 모든 대학이 어렵다. 폐교가 남의 일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정민영

강원도민일보

화천산천어축제 온라인서도 뜨거운 인기

2024년 01월 16일 (화)

지역 16면

한달간 유튜브 영상 3만4000건
개인방송·SNS 게시물 등 공유
산천어 요리·즐길거리 홍보 효과

2024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의 인기가 축제장 현장을 넘어 온라인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화천군과 나라에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인 '구글'을 검색한 결과 지난해 화천산천어축제 시즌을 본격 준비하면서부터 15일 현재까지 한달여 동안 유튜브에서 축제 관련 동영상 3만 4000여건이 업로드됐다.

이들 유튜브 콘텐츠 대부분은 제작



2024 화천산천어축제장을 찾은 유튜브가 축제 콘텐츠를 소개하며 최문순 화천군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자가 직접 화천을 방문해 촬영한 동영상으로 1분 이내의 '쇼츠 영상'에서부터 1시간 분량의 영상까지 다양하다. 동영상의 경우 예전에는 주로 단발적 낚시 영상과 축제장 가수 공연 등이 주를 이뤘지만 올해 업로드된

영상은 산천어 낚시 채비부터 화천까지 가는 길, 낚시 노하우, 주변 즐길 거리와 산천어 요리까지 말 그대로 축제의 모든 것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들은 축제장의 열기를 확산시키는 촉매 역할을 톡톡히 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유튜브 뿐 아니라 국내 최대 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작자들의 방문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들도 실시간으로 자신의 방송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축제장 곳곳을 소개, 축제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도 화천산천어축제 관련 게시물이 셀 수 없이 업로드 되고 공유되고 있다.

나라에서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크리에이터들의 방문이 급증하자 이들에게 사전 협의를 통해 비표를 배부하고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신형식 화천군 홍보담당은 "얼음 낚시 뿐 아니라 실내 얼음 조각 광장과 눈·얼음 썰매 등 다양한 콘텐츠가 관심을 끄는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에서 제기된 축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은 곧바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의호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6일 (화)

지역 17면

러시아산 냉동명태 속초항 직수입 추진

속초해양산단협 관계자 방러
러 최대 수산물 수출기업 협의
북방항로 이용 물류비용 절감

속초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있는 북방항로가 재개된 가운데 러시
아산 냉동명태를 속초로 직수입 하기
위한 민간자원의 움직임이 있어 귀추

가 주목된다.

속초해양산단협지협의회의에 따르
면 장기호 회장을 비롯한 지역내 코
다리 가공 업체 관계자 4명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기 위해
15일 출국했다.

이번 러시아 방문은 부산을 통한
원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줄이
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통해 지역
명태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는 판단에서다.

속초를 비롯해 고성·양양·인제군
등 설악권 명태업체들은 국내 명태수
입량의 70% 이상을 소비하고 있지만
전량 부산을 통해 러시아산 냉동명태
를 수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
는 이번 방문에서 러시아 최대 수산
물 수출기업인 '러시아 피셔리'를 방
문, 속초항으로의 냉동명태 직수입
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된 북방항로의 안정적인
화물 물량 확보를 위해 소규모 수산
물 수출 업체도 일부 방문할 예정이
다. 장기호 회장은 "부산에 상황에 따
라 물량 변동이 심해 지역 명태 가공
업체들이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러
시아 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 루
트를 확보하고 이후에는 지역내 대형
냉동창고 조성을 위해 행정과 협의회
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석

江原日報

2024년 01월 16일 (화)

사회 04면

강원도에 겨울이 사라진다



연중 기획 - 기후 위기, 해법을 제시한다

現 겨울 122일→2081년 71일 절반 감소 겨울축제 못 할 수도
반면 여름 길이 81일→163일 2배 증가... 지역맞춤 정책 절실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60여년 후 강원특별자치도의 겨울
이 현재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
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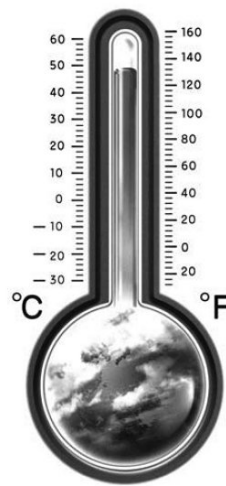
본보가 입수한 기상청의 '강원자
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
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를 배출하다가는 강원자치도의 겨
울이 현재 122일에서 2081년에는
71일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강원지역 겨울 일수는 2000년에
서 2019년 사이 122일로 관측됐으

나 '탄소배출량'이 현재와 비슷하
게 유지될 경우 이번 세기 말인 오
는 2081~2100년에는 71일까지 무
려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도내 각 지역에서는 매년 개
최되는 겨울축제가 원활하게 운영
되지 못하는 등 '짧고, 뜨거운 겨
울'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기후위기가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름은 81일에서 163일로 2배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온난화에 따른 온도상승 폭도 컸
다. 현재와 같이 기후위기를 악화
시키는 화석에너지 사용이 계속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기온은
2040년까지 1.6도 상승하고, 2081
년에는 지금보다 무려 6.5도 오르
게 된다. 이는 전국 평균 6.3도보다
도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원
주·철원·고성·양양 기온이 2040
년까지 무려 1.6도 상승해 폭이 가
장 컸다.

이미 겨울철 기온 상승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강릉
(북강릉,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정선, 철원, 인제, 대관령 등 9개 지
점, 8개 시·군의 일평균 기온이 역
대 최고를 기록했다. 12월 월평균
기온이 영상 1도였던 원주지역은



역대 두번째 최고 기온을 보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변화의
폭과 양상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
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정
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
다"며 "위기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박서화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6일 (화)

사설/칼럼 19면

총선 공천 시대성 부합해야

-유권자의견 수렴한 투명하고 개방적인 상향식 바람직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후보추천 일정을 확정하는데 이어 오늘(1월 16일)은 국민의힘 공천관리 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구체적인 공천 시계를 가동합니다. 여야 정당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4·10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추천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제가 나옵니다. 경선을 거치지 않는 지역의 경우는 빠르면 2월 9일 설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위 결과, 윤리위원회 심사, 현지 실태조사, 당 기여도 등을 반영한 공천심사 기준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의원에 대해 의정활동 및 기여도, 공약이행 정도와 지역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디지털 및 언론소통 실적 등의 기준을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두 주요 정당은 현역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로 분류된 경우는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 원외에서 출사표를 낸 입지자들은 컷오프와 경선 방식 등을 놓고 관심이 쏠립니다.

강원 정치권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현역의원 우세가 두드러져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전수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정치신인을 비롯해 원외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 중인 도전자들이 20여명에 달하므로 소속 정당에서 무리하게 현역의원을 단수 추천으로 결정할 경우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9대 총선부터 주요 야대 정당에서 개방형 경선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 지탄 대상이 된 '밀실 공천'이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앙당과 당 지도부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당에서 상향식과 하향식 공천 방식이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폐쇄적인 공천을 배제한 상향식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고위 선출직으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후보는 일찌감치 걸러내야 합니다.

정당은 후보 선출에 대한 권한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모두 집니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과 기준은 투명해야 하며, 어떤 후보자를 공천하고자 하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선호하는 '적합한 후보자'를 공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적 욕구와 시대성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과 여성 등 가산점 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 걸맞은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공천을 지향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1월 16일 (화)

사설/칼럼 19면

여주~원주전철 이어 춘천GTX 확정을

-원주~서울 40분 예상, 수도권 철도망 확대 기대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사는 약 9300억원을 투입,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경강선 22.2km 구간을 연결합니다. 오는 2028년 개통하면 준고속철이 투입돼 원주~여주 9분, 원주~서울 강남 40분, 원주~인천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후 약 13년 만에 착공한 이 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 도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큼니다. 특히 인천~강릉간 동서축 철도 노선 완성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의 동반 성장 핵심 교통망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월곶~판교 구간과 여주~원주 구간이 비슷한 시기에 완공, 동서축이 단절 구간 없이 연결됩니다.

4년 뒤 전철이 개통하면 원주 지역의 수도권화가 가시화합니다. 또한 의료기기와 첨단 미래 산업 발전의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서울 등 수도권과 동일 생활권으로 묶인다면 젊은 층 등 인구 유입 효과도 전망됩니다. 원주시는 철도 개통에 대비해

정주기반을 개선하는 한편, 산업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수부도시인 춘천의 광역 수도권화를 견인할 GTX-B 연장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광역교통 국민간담회를 통해 춘천 연장을 언급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GTX-B 춘천 연장은, 지역 공동화 위기에 놓여 있는 강원 지역에 활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춘천시와 가평군의 사전타당성조사 공동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합격' 점수가 나왔습니다. 노선을 운영하면 춘천뿐만 아니라 홍천·화천·양구 등 영서 북부권도 교통망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접경지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연장 여부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시민의 관심이 큼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접경지역 지자체가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해야 합니다. 도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사업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춘천 연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조기에 확정해야 할 사업입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장기 숙원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16일 (화)

사설/칼럼 19면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 지역발전 전기 삼아야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경기 여주에서 원주를 잇는 총연장 22.2km의 철도망 구축으로 9,30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인천까지는 87분이 걸린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일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식을 가졌다. 여주~원주 복선화는 지역 숙원이자 수도권의 현안이였다. 시작은 단선이었지만 준공은 복선으로 하겠다는 원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 낸 성과다. 인천과 강릉을 횡단하는 강릉선 철도망의 마지막 퍼즐로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 완성, 영동고속도로 교통체증 해소, 수도권·강원권·충북권 광역 교통편의 증진 등이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착공식에서 “정부 SOC 사업의 핵심은 지방을 잘살게 하는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밝혔다. 여주~원주 철도가 준공되면 인천국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수도권 지역~평창동계올림픽특구~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등 수요 밀집지역 간을 연결하는 국가발전 중심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사통팔달의 철도망이 놓이게 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의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호재를 맞고 원주를 주축으로 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내 영서남부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까지 혜택을 받게 돼 동서축이 이어지는 국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최근 도내 교통망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 실제 서울~춘천을 잇는 고속도로와 복선전철이 잇따라 개통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올 연말에는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고속철이 본격 운행한다. 삼척~포항 고속철도 완공 시 동해~삼척~포항 구간은 50분대, 강릉~동해~삼척~포항~울산~부산 구간은 3시간 이내 주파가 가능해진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개통 시 서울~속초는 1시간39분 거리로 가까워진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용문~홍천 광역철도 역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업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예타 통과 시 홍천과 청량리가 1시간대에 연결된다.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GTX-B 춘천 연장 여부도 사업 확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 어디든 1~2시간대 이동 가능한 강원형 철도혁명 시대의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사통팔달의 철도망이 수십년 동안 위축돼 있던 지역발전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江原日報

2024년 01월 16일 (화)

사설/칼럼 19면

여야 공천, 국민 눈높이 맞추지 않으면 ‘백전백패’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당의 경쟁이다. 정당이 공천 개혁을 내세워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앞세우는 것도 정책보다 더 표심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여야의 총선 공천은 “이런 공천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실망을 안겼다. 패권주의와 일방주의가 횡행한 반면 상식과 합리성, 공정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야의 국가 전략 논쟁은 뒷전이다. 나라야 어찌 되든 자기 진영의 적과 상대 정당을 몰아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정당 민주주의의

요원한 현실만 거둬들인 것을 따름이다. 우리 정당들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았다. 자신의 생존과 정파 이익, 기득권 유지 노력에만 몰두한 것이 아닌가. 즉,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공천’이 실종되고 총선 후 권력 재편을 겨냥한 ‘패권 공천’만 난무했다. 함양 미달 후보가 많았고 공약도 부실해 정책 경쟁이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의 공천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 백전백패다. 이번 22대 여야의 총선 공천은 달라져야 한다.

여야 공천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공관위 운영 로드맵을 설정한다. 앞서 당 총선거획단이 결정한 공천 기준과 당무감사 결과 등을 보고받아 공천률을 논의한 후 컷오프, 전략 및 단수 공천, 경선 지역 등을 가릴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12일 첫 공관위 회의

를 가진 더불어민주당도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5일부터 20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를 진행 중이다. 선거 때마다 항상 공천은 논란이다. 정치적 유불리 때문이다. 그래서 공천은 냉엄한 권력 현실과 원칙의 조화가 중요하다. 공천 방식은 당시의 시대적 요청과 정치적 필요를 반영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공천은 조금씩 나아졌다. 그 방향은 민주화, 개방화, 투명화였지만 그럼에도 국민 기대에는 못 미쳤다.

공천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명분에 맞춰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확실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공감하는 원칙이 있다. 공천 과정은 상향식이며 개방적

“자기 진영의 적과 상대 정당 몰아세우는 등
그간 상식·합리성·공정성 찾아보기 어려워”
시대정신 반영하며 상향식·투명성 담보돼야

으로 진행돼야 한다. 하향식이고 폐쇄적으로 이뤄지면 곤란하다. 그리고 공천은 지극히 현실적인 권력의 얘기지만 그럼에도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과정으로 궁극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 또한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최소한 선거 일정 시기 전에 해당 선거의 공천 일정과 방식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확정된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이해당사자 모두가 승복할 수 있고 탈당과 분당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다 공천의 최종 책임자는 정당이며 공천은 선거운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당은 공천 자원을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치도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